

최근 러·중 경제협력 강화: 특징과 시사점

이재영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팀장 (lly@kiep.go.kr, Tel: 3460-1089)

민지영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원 (jymin@kiep.go.kr, Tel: 3460-1095)

강부균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원 (bgkang@kiep.go.kr, Tel: 3460-1242)

차 례 ● ● ●

1. 러·중 경제협력 강화 배경
2. 러·중 경제협력 현황
3. 러·중 경제협력의 주요 내용과 특징
4. 러·중 경제협력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양자 교역 확대 및 시리아·이란 문제에 대한 공조를 통해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푸틴 3기에 러시아의 대중국 정책이 강조됨에 따라 양국 관계 발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 푸틴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러시아의 현대화 및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중국도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자재 확보를 위한 극동·시베리아 인프라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 ▶ 러·중 양자 교역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역 확대에 비해 미진했던 투자 부문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양국간 교역액이 전년대비 35.9% 증가한 835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양국은 양자 교역액을 2015년까지 1,000억 달러,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 양자 투자액은 지난해 38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 2014년 소치올림픽 등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지역간 협력을 확대하고, 첨단부문 등으로 협력 범위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양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공동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금융·투자·에너지·인프라를 비롯하여, 컴퓨터 공학·항공기 제조·우주탐사 등의 첨단부문에서도 상호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킬 계획임.
 - 또한 최근 러·중 투자펀드 설립을 추진 중이며, 극동 접경지역 및 코카서스 관광 인프라 개발협력에 대해서도 논의 중임.
- ▶ 에너지 협력, 접경지역 이주자 문제,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양국의 경쟁구조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나,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추세는 지속될 전망으로 이는 한·러 관계 발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한국도 러시아의 지역발전과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투자보호제도 마련 및 '한-러 공동투자펀드'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의 경우 대(對)러 관계에서 갈등·경쟁적인 요인이 중국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와 신뢰를 바탕으로 극동개발 참여 확대 및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지역별 경제협력 다변화가 필요함.

1. 러·중 경제협력 강화 배경

■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와 더불어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음.

- 2011년 6월 양국 정상은 러·중 친선우호협력조약 체결 10주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음.
- 러·중 양국은 최근 시리아 사태 및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서방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거부권 공조로 대응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하이협력기구(SCO) 차원에서 지역안보 및 경제협력 파트너십도 적극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5~7일 양국 정상회담 및 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및 SCO 내에서 다자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러·중 정상은 양국 협력 관계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데 동의하고, 지난해 합의한 바 있는 교역 확대 및 러·중 투자펀드 설립안을 재확인하고, 산업·관광·원자력 분야 협력 등을 포괄하는 일련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835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액을 2015년까지 1,000억 달러,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함.
- SCO 정상회의에서는 중기 발전계획을 채택하고, 향후 회원국들간 금융·에너지·운송·통신·농업 부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개발은행 설립계획 등을 발표함.

■ 이는 2012년 5월 출범한 푸틴 3기 러시아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우선적인 대외경제정책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푸틴은 2012년 2월 외교정책방향을 담은 기고문¹⁾에서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부상하는 중국과 상호이익에 기반한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3월 수정·발표한 ‘전략 2020’에서도 러시아 경제 현대화를 위해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주요 과제라고 밝힘.
- 특히 푸틴은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및 에너지 판매시장 확보를 위해 대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푸틴은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국에 대해 EU를 대체할 주요 투자협력국으로 인식하고,²⁾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협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지역 다각화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수출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1) 푸틴은 “러시아는 변영하고 안정적인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도 강하고 성공적인 러시아를 필요로 한다”라고 밝힘으로써 대중국 정책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Moscow News(2012. 2. 27), “Russia and the changing world”).

2) 푸틴 대통령은 방중에 앞서 중국 인민일보에 게재된 “‘러·중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란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러·중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음을 강조함(“Russia and China: New Horizons for Cooperation”(2012. 6. 5), <http://www.Kremlin.ru>).

- 한편 중국도 신흥국 및 인접국으로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원 확보와 이를 위한 극동·시베리아 인프라 개발, SCO를 통한 지역 내 안보 및 경제 안정화를 위해 대(對)러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최근 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 속에 부상하는 신흥국으로서 러·중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시리아 사태 등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입장임.
- 특히 중국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며,³⁾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자원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중국 입장에서는 양국간 교역 및 인력교류 확대 차원에서도 극동지역을 비롯한 자국의 동북 3성 접경 지역 개발이 중요한 과제임.
- 또한 중국은 SCO를 통해 지역 안정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역내 전통세력인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함.

2. 러·중 경제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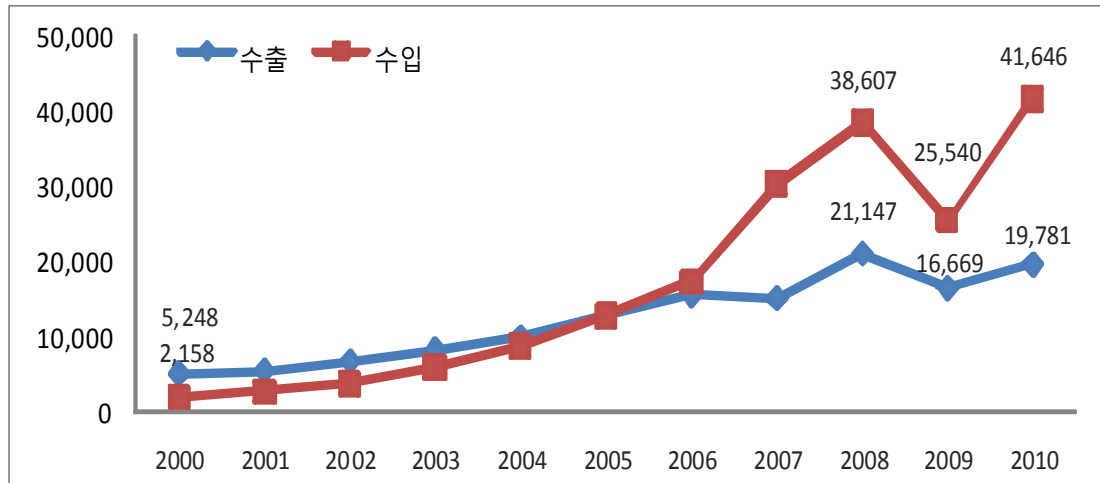
가. 교역부문

- 양국은 1997년 「러·중 총리급 정기회의 메커니즘의 설치와 원칙에 대한 합의문」을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1990년대부터 협력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옴.
- 1993~2000년 러·중 교역액은 50억~70억 달러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같은 기간 러시아의 총 교역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에서 1.7%로 감소함.
- 러·중 간 정기회의 메커니즘은 무역부문 이외에 기타 주요 사업 및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장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협력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양측간 정기적인 교류는 최근 급속한 러·중 경제협력 발전의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됨.

3) 중국의 가스 수요는 2030년까지 연간 8%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와 수년째 가스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인 상황임(Reuters, 2012. 6. 7).

그림 1. 러시아의 대중국 무역추이(2000~10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검색일: 2012. 5. 15).

■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이 교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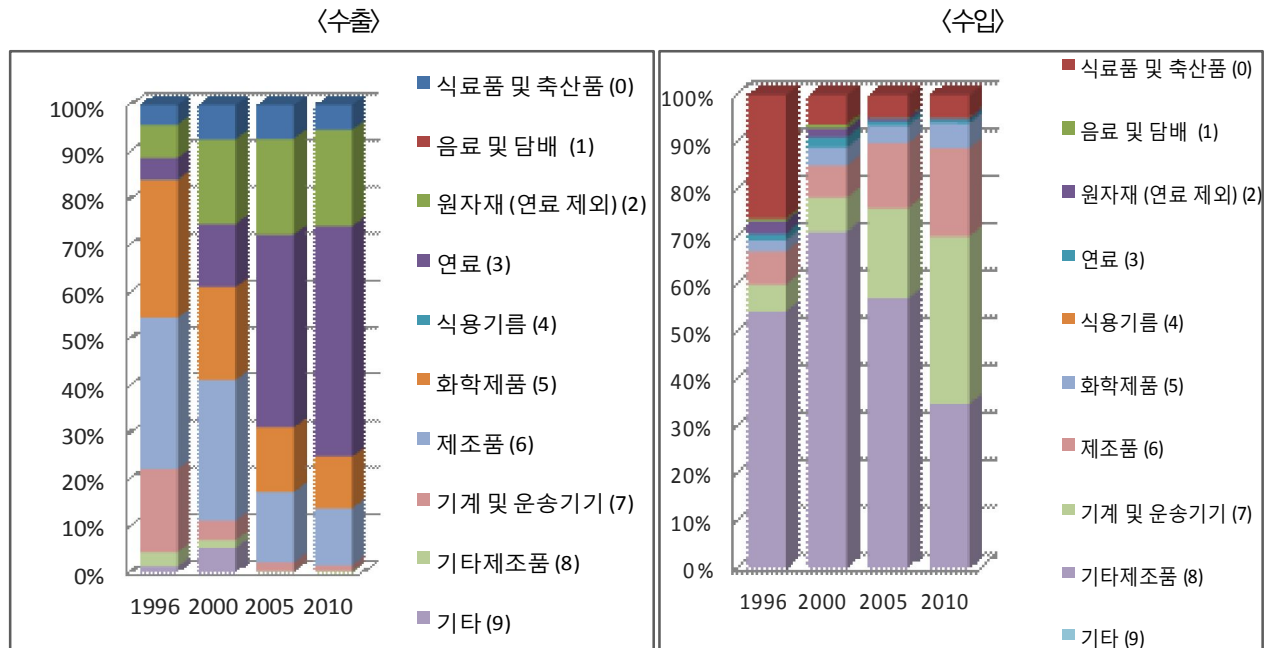
- 2000년대 초반에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5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러시아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재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그림 1 참고).
- 2000년에 약 74억 달러였던 양국의 교역액은 2010년 약 614억 달러로 10년간 8.3배 증가하였으며,⁴⁾ 2011년 러·중 교역액은 2010년 수준보다 35.9% 증가한 835억 달러를 기록함.
- 2004년 양국이 2010년까지 중기 무역액 목표를 600억~800억 달러로 설정한 것을 고려할 때 무역부문의 경제협력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교역부문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불균등한 파트너 관계를 보이고 있음.

- 2000년 이후 러시아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 9.5%를 차지하며 독일을 제치고 제1위 교역국으로 부상한 데 이어 2011년에는 10.2%로 증가함.
-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교역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임.
 - 2010년 중국의 총 교역액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86%로 중국의 제10위 교역국이었으며, 2011년에는 8위로 두 단계 상승했으나 그 비중은 2% 미만임.

4)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는 교역량이 감소했으나 최근 급속히 회복, 증가하고 있음.

그림 2.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입구조(SITC)



자료: Arkady Moshes & Matti Nojonen eds.(2011), "Russia-China relations," FIIA Report 30, p. 47에서 필자가 재구성.

■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첨단제품 수출의 비중을 늘리는 등 자국의 수출구조를 다각화하고자 하나 아직까지는 에너지 의존형 수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1990년대 러시아는 중국에 화학제품·제조품 등을 수출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에너지 및 원자재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
- 2010년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에서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 수출 비중은 60% 이상⁵⁾을 차지했으나, 기계 및 운송기기 수출은 약 1%에 불과했음(그림 2 참고).
 -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석유 및 석유제품·목재·철광석·화학비료·화학제품·비철금속·펄프·철금속 등임.
- 한편 1990년대와 달리 최근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구조가 변화하고 있음(그림 2 참고).
 - 1990년대에는 주로 식료품·의류·신발·장난감 등이 주류였으나, 이후 제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자동차·농기계·가전제품 등의 수출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러시아와 중국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국경무역이 양국의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사이에서 이루어짐.

- 2011년 헤이룽장성에서 양국의 교역은 전년대비 150% 증가한 약 19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지역 총 교역액의 23.96%를 차지했음.

5) 2011년에는 75%를 초과했음.

- 2011년 헤이룽장성의 대러 수출품에서 신발, 의류 등이 절반 정도, 기계 및 전자제품이 38.2%, 그리고 첨단제품이 10.3%를 차지하였음.
- 반면 2011년 이 지역의 대러 수입품은 석유·철광·목재·펄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석유의 경우 헤이룽장성은 중국의 대러 석유수입의 60%에 달하는 1,500만 톤을 수입하였음.

■ 2012년 1/4분기 러·중 양국의 교역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 215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바,⁶⁾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양국 교역액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6월 후진타오 주석 방러 당시 양국은 양자 교역규모를 2015년까지 1,000억 달러,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러·중 양국은 중국의 대러시아 기계 및 전기발전기기 수입증가에 합의하는 등 현재 양자 교역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기계·제조 부문을 확대할 계획임.

나. 투자부문

■ 러·중 양국간 투자협력은 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나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0년 러시아의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약 3,500만 달러로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0.34%였으며, 이는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액의 0.03%에 불과함.
- 2010년 중국의 대러 직접투자는 약 5억 6,800만 달러로 중국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0.94%였는데, 이는 러시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액의 4.11%에 해당함.
- 2004년에 투자 촉진을 위한 ‘러-중 투자포럼’을 하바롭스크에서 처음 개최한 이후 양국은 계속해서 ‘러·중 투자통상포럼’의 형태로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음.
- 같은 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러-중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2020년까지 중국의 대러 직접투자액을 12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음.⁷⁾
- 중국의 대러 직접투자는 주로 벌채·목재 가공·자원개발·식물·가전제품·통신서비스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8~09년에 금융위기로 주춤하긴 했으나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러·중 투자액은 전년대비 630% 증가한 3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양국간 상호 투자액은 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6) FK-Новости(2012. 5. 4).

7) *Ekonomic News*(2004. 10. 19).

표 1. 러시아의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입 추이(2005~10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유출	81.99	67.2	52.07	59.97	31.77	34.97
유입	203.33	452.11	477.61	395.23	348.22	567.72

자료: CEIC(검색일: 2012. 5. 21).

- 향후 양국의 투자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주로 원자재·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2012년 4월 러시아와 중국은 금융·에너지·기계 및 전자제품 등의 부문에서 양자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총 27건의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을 체결하였으며, 그 규모가 무려 1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에서 러·중 합작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합작기업 수에서 중국은 독일에 이어 2위를 차지함. 최근 기계제조(Xi' Ao Aeroplane Manufacturing), 건설(Sakhcement-Longzing, New Century) 등의 부문에서 합작기업들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음.
- 2012년 APEC 정상회의와 2014년 소치올림픽 등 러시아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들이 양국의 투자를 확대하는데 한 몫 할 것으로 보임.

3. 러·중 경제협력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기존 경제협력의 분야별·지역별 심화와 확대·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러·중 양국은 2009년 9월 23일 양국간 인접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2009~18년 러시아연방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과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역 간의 협력계획'을 체결한 바 있음.⁸⁾
 - 이 계획은 러시아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중국 헤이룽장성의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극동-동시베리아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도로 및 인프라 건설, 농업부문 투자 등 205개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 극동 19개 지역에서 총 100억 달러 규모의 주요 공동사업 27개가 진행되고 있음.
- 2011년 6월 러·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금융·투자·에너지·인프라 건설·관광 등을 비롯하여 컴퓨터 공학·항공기 제조·우주탐사 등의 첨단부문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최근 투자펀드 설립을 추진 중이며, 관광협력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바이오 및 나노 기술, 친환경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함.

8) 이재영 외(2010),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 2012년 4월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⁹⁾와 중국 투자회사(CIC)는 러시아·중국 투자펀드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6월 안에 설립절차가 완료될 예정임.¹⁰⁾

- 러시아·중국 투자 펀드 규모는 약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RDIF 10억 달러, CIC 10억 달러, 나머지 20억 달러는 중국 투자기관을 중심으로 확보할 예정임.¹¹⁾
- RDIF가 경영 및 사업 발굴·채택·연구·평가 등을 전담할 예정이며, 지분구조는 RDIF 60%, CIC 40%로 할 계획임.
- 이 펀드는 최초자본 10억 달러로 운영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는 주로 러시아 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자본의 70%는 러시아 및 CIS 지역에, 30%는 중국 내 투자를 목표로 함.
 - 투자 분야는 농업, 임업 및 목재가공, 기계제조, 운송 및 물류 등이며,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도 관심 대상임.
 - 러시아 내 공동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펀드가 지원되며, 중소기업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러시아는 낙후한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함은 물론 아태 경제권에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3기 집권에 성공한 푸틴은 2012년 5월 21일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시베리아·극동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임기 동안 극동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함.
- 러시아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서구 투자유인의 한계를 인식하고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중국과 교역 및 투자협력 확대를 원하고 있음.
- 2011년 현재 중국(2위)은 한국(1위), 일본(3위)과 함께 극동지역 주요 교역국 중 하나임.
 - 지난해 극동지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2010년보다 21.1%나 증가한 8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 및 석유제품·냉동생선·목재·광물이고, 주요 수입품은 의류·신발·자동차·기기·기계·전자기기 등임.
 - 그러나 중국이 이 지역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6%인 데 반해 중국의 투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함.

■ 중국은 세계 1위 에너지 수입국이며, 러시아는 아시아 에너지시장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바,¹²⁾ 양국간 에너지 부문의 협력이 매우 유망하나 현재까지는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총 석유 수입량의 6%를 수입하며, 러시아는 중국의 4대 에너지 수입국임.

9)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는 러시아가 외국 투자기관과 협력하고 에너지 수출 편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1년 6월에 설립하였음.

10) *Ведомости*(2012. 5. 2).

11) RDIF의 키릴 드미트리예프(Kiril Dmitriev) 사장은 러시아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를 조달할 것이며, 러·중 투자펀드 규모가 총 600억 달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음.

12) 러시아는 '2003 에너지 전략'에서 당시 3% 수준에 머물렀던 러시아의 아시아 내 에너지 공급을 2020년까지 석유는 시장의 30%, 가스는 25%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이후 2009년에 오는 2030년까지로 수정된 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석유의 경우 당시 6%에서 22~25%, 가스는 0%에서 19~20%로 늘린다는 것임.

- 2011년 초 러시아 극동 스코보로디노와 중국 다칭을 연결하는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ESPO)이 가동을 시작하였는데, 당초 계약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매년 1,500만 톤의 석유가 공급될 예정이나 2011년 실제 공급량은 이에 미치지 못했음.
- 러·중 양국은 2006년에 향후 30년간 연간 680억㎥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두 개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데 합의하고,¹³⁾ 가스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가스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답보 상태임.
 - 중국은 양국의 거리가 가까워 운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가스 가격을 1천㎥당 200~250달러로 책정하고자 하나 러시아는 유럽 수준인 350~400달러를 주장하고 있음.
- 올해 6월 5~6일 러시아와 중국은 양자회담을 통해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재생에너지, 원자력, 전력 부문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가스 공급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음.

■ 러시아와 중국은 금융부문으로도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있음.

- 2007년에 러시아 은행 최초로 중국 상하이에 러시아 대외통상은행(VTB) 지점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미 2010년 말에 주식거래 시 위안화-루블화 거래에 대한 합의를 하여 현재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 3월 말까지 상하이 주식시장에서는 총 637건(56억 위안)의 거래가 루블화로 결제되었고, 모스크바 주식시장에서는 총 3,384건(14억 위안)의 거래가 위안화로 이루어졌음.¹⁴⁾
- 2011년 6월에는 양자 무역거래 시 자국화폐 사용에 합의하였음.
 - 이는 두 국가의 화폐가 국제화되는 데 기여하며, 환율 리스크 및 화폐 교환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 양국은 관광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2012년은 중국, 2013년은 러시아에서 관광의 해를 정하여 교류하기로 함.

- 2011년 약 84만 명의 중국인이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이 중 약 80%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약 15%는 아무르 강변의 국경 근처를 방문했음.
 - 2011년 여름 500명의 러시아 학생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으며, 곧 두 번째 대표단이 중국을 여행할 예정임.
-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 발표회, 자동차 경주 등 2012년에만 100건 이상의 관광진흥행사가 연방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임.
- 또한 시베리아·극동지역 국경 주변에서의 관광협력 방안과 크라스노다르, 다케스탄 등 코카서스 일대의 관광 인프라 협력 및 관광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 중임.

13) 목표 공급량 연간 680억㎥ 가운데 300억㎥는 서부 알타이 노선을 통해, 나머지는 동부 동시베리아 노선을 통해 공급하기로 합의함. 중국은 동부 해안 중심지의 에너지 수요확대에 따라 동부 노선을 선호하고 있음. Platts(2012. 6. 7), "China, Russia continuing gas sales agreement talks."

14) *Russia Beyond The Headlines*(2012. 4. 23).

■ 무기 교역은 2005년까지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은 재래식 무기의 9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으며, 중국이 러시아 전체 무기 수출의 40%를 차지했음.
- 양국의 무기 교역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상승추세에 있었으나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음.
 - 1992~2005년 동안 러·중 군사기술협력위원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회동을 가졌으나 2006년과 2007년에는 만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무기 무역에 관한 합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
- 2010년 11월 양국은 다시 러시아의 무기부품 수출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양국간 무기 교역이 예전처럼 활발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는 중국이 자국 군수산업기술 발달에 따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러시아 무기보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으로 완제품 수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임.

■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의 국경 근처에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4년에 ‘포그라니치니-수이펜헤’ 무역단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음.

- 2006년에 개장한 포그라니치니-수이펜헤 무역단지 설립에 소요된 총 예산은 약 6억 달러이며, 단지 크기는 8만 4,000km²로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의 헤이룽장성에 위치함.
- 이 무역단지는 러·중의 지역경제 통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양국이 서로 의도한 바가 달랐기 때문에 성공적이지는 못했음.
 - 중국의 경우 이 단지가 동북아시아 무역활성화의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한 반면, 러시아는 국경 근처 중국 상인들의 보따리 무역을 통제하고 러시아 극동 도시 내 중국시장의 확대를 막는 도구로 봤기 때문임.
- 한편 러·중은 2009년 10월 수이펜헤 국경 근처 검문소에 수출품 가공 시설과 창고를 포함하여 1.8km² 크기의 면세지역을 설립한 바 있음.
 - 당시 상품교역이 연간 20억 달러(약 30%)씩 증가하여 헤이룽장성의 지역총생산에 2~5%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음.

■ 최근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러시아 전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중 지방정부 간 협력 채널도 확대되고 있음.

- 2012년 6월 7일 푸틴 대통령의 방중 과정에서 중국은 러시아 코카서스 지역의 휴양지 개발을 위해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함.¹⁵⁾
- 중국은 러시아 정부가 자유경제지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다게스탄의 카스피해 연안 지대, 2014년 동계올림픽이

15) *Московский комсомолец*(2012. 7. 7).

개최될 소치 지역 등에 호텔 건설, 상업용 부동산 개발 및 관광위락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지방정부와 러시아의 볼가강 유역 지방정부는 원탁회의 등을 통해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음.¹⁶⁾

4. 러·중 경제협력 전망과 시사점

■ 러·중 양국 관계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에너지 협력, 접경지역 이주자 문제,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양국의 경쟁구조 등이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음.

-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억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의 상호보완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다년간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가스 가격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극동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중국과의 인력 교류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중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및 불법이주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음.
- 또한 러시아 내에서도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유라시아 연합'과 같은 지역경제통합 프로젝트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양국간 위안화-루블화 결제 시스템은 교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이지만, 동시에 위안화가 국제화될 경우 러시아에 도전과제가 될 수 있음.
 - 이는 중국이 지역(또는 세계) 기축통화 발행국이 될 경우 국제 통화시스템의 안정성이 줄어들고 러시아 루블화가 국제 결제시스템에서 통용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향후 교역구조 개선 및 경제협력 부문 다각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무역부문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교역 및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이루어진 양국 정부인사 간 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양국은 첨단산업 부문 및 코카서스 등 부문별·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러시아는 대중국 교역구조를 다각화하고자 하며 극동·시베리아 지역 인프라 개발을 위해 중국의 투자를 유인하는 등 경제 다각화 및 현대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음.

16) *РК-Новости*(2012. 5. 2) 참고.

- 다만 최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양국 합의사항의 충실한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러·중 관계 발전에서 주목할 부분은 양국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동을 갖고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임.

- 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러·중 위원회’를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회동을 가져왔으며, 군사협력부터 무역통상협력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협력분야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음.
- 이에 한국도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회동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인위적으로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 교류를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임.
- 러시아와 중국은 양자 교류 확대를 위해 이미 2006년 중국에서 ‘러시아의 해’, 2007년 러시아에서 ‘중국의 해’를 가진 바 있으며, 2012년과 2013년 ‘관광의 해’를 정해 다양한 교류행사를 진행할 예정임.

■ 러시아의 지역발전과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을 위해 ‘한·러 공동투자펀드’를 설립하는 방안도 참고할 만함.

-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어렵고, 러시아 기업 또한 한국에 진출한 사례가 매우 제한적임. 공동투자펀드 설립은 양국의 투자협력을 확대하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것임.
-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된다면, 양국의 중소기업 육성과 향후 장기적인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또한 2006년에 러시아와 중국은 정부간 자본투자 장려 및 보호협정을 체결하여 투자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내기업들이 극동지역에 진출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국가 전략적 차원의 진출을 위한 ‘극동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극동·베리 아 지역의 에너지원 탐사·개발뿐만 아니라 농업·수산업·임업·인프라 개발 분야 등 다방면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푸틴 3기 러시아 정부는 ‘극동개발부(장관: 빅토르 이사예프)’를 신설하여 극동지역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극동지역의 개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러시아와 ‘2009~18년 동안 러시아 극동지역과 자국의 동북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채택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도 러시아와 이와 유사한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의 경우 대러 관계에서 갈등이나 경쟁적인 요인이 중국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와 신뢰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보임.
- 러·중 경제협력이 뚜렷한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이 러시아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과 러시아 인프라 개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모스크바 등 대도시의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로 글로벌 기업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협력 대상지를 지방까지 확대하는 지역별 다변화·차별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소치 지역을 비롯해 카스피해 인근 코카서스 지역의 인프라 및 관광·휴양단지 개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